"인연을 기회로…적극 다가가 배울 때 성공도 다가와"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3〉㈜치른시빌 정혜진 대표

국내 첫 미술 교육 콘텐츠 개발·판매 기업
미술 체험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운영
지난해 매출 2억여원…해외 판매도 '눈앞'

클레이로 만든 먹음직스러운 피자시계

"사람들을 통해 얻은 기회가 하나둘 연결되면 창업 성공의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정혜진(29·여) ㈜치른시빌 대표는 27일 창업 성공의 비법을 이같이 강조했다.

㈜치른시빌은 국내 최초의 미술 교육 콘텐츠 개발·판매 기업이다. 아동부터 고령층까지 즐길 수 있는 30종 이상의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하고, 아트 키트를 구매해 어디서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곳의 메인 프로그램은 '액션 페인팅'과 '플루이드 아트'로 비전문가도 1시간이면 멋진 작품을 완성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션 페인팅 체험

올해로 5년차 청년 사업가인 정 대표는 전공인 서양화를 살려 창업했다.

'치른시빌'은 숫자 '7=11'을 발음 그대로 적은 것으로 한글 '계'와 모양이 비슷하다. 지난 2020년 첫 사업장이었던 계림동의 '계'를 상호명에 넣었는데 개업 당시 '7=11'이라고 적힌 숫자 간판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주로 방문했다.

사업 초기에 재정 부담을 느낀 정 대표는 6개월간 아버지와 함께 매장 인테리어 등을 '셀프' 시공했다. 이 기간 가게 앞을 지나가며 훈수(?)와 도움을 주던 주민들과 친해지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계림동 주민자치회의 협업 제안으로 마을 내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벽화를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미술 수업으로 점차 인지도가 생기자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에서 단체 수업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 매장에서 수용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출강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정 대표는 사업을 확장하면 잘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나주 빛가람동에 2호점 '그리얼'을 열어 공공기관 출강과 공간 대관사업을 야심차게 계획했으나 개업 4개월 만인 7월에 마음이 무너지는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내린 폭우로 사업장 내 미술 용품과 디자이너 제품 등이 침수돼 3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이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발품을 팔아 계림동과 빛가람동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현 대의동 사업장을 우연히 발견했고 이곳에 둥지를 튼 후 다양한 사업 제안이 들어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정대표는 미술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플리마켓 수익은 동구지역 아동센터에 전액 기부할 예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중하고 있다.

그는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결국은 사람을 통해 기회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광주시나 구청의 지원 사업을 비롯해 청년창업가, 선·후배, 지인들 모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2억여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정 대표는 아동 소근육 발달을 위한 미술 키트 수출 판매 등을 통해 올해에는 '5억 매출'을 달성하고 치른시빌을 광주에서 최고로 꼽히는 미술 교육 현장으로 만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대표는 "광주·전남 청년창업가들이 '핀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연차 창업가들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좋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질문이든 던질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모임들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새가 먹을 것을 찾아 방앗간에 오는 것이 당연하듯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성공한 선배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며 "관심 있는 분야에 성공한 창업가가 있다면 다가가 적극적으로 묻고 배우려 할 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솔 기자

광주시 지방기능경기대회 내달 1일 팡파르

5일까지 광주공고 등 10곳서 금형 등 36개 직종 339명 참가

광주지역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광주시 기능경기대회가 4월1일 막을 올린다.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27일 "내달 1-5일 '2024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가 광주공고 등 1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광주시 대표 뿌리산업인 금형 등 36개 직종의 339명 선수들이 참가한다.

참가선수 소속 기관은 특성화고 및 대학교 교육기관 285명, 법무부 제7공공직업훈련소 및 학원 등 훈련기관 9명, 산업체 11명, 개인 1명이 출전한다. 성비로는 남자 79%, 여자 21%, 연령별로는 10대 81.4%, 20대 6.5%, 30-40대 5.3%, 50대 이상 6.8%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소정의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시험이 면제되며 오는 8월24일 경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윤옥균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은 "광주지역 우수기능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앞장서는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하나!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참여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접생산증명서 및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광주시 소재 제조기업으로 전문가 컨설팅(300만원 상당)을 6개사 선착순 전액 무료 지원한다.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라장터 등 전국 주요 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전주상의서 상공인 간담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정 간담회는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국세청의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청장은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닮은
인정 가득한 곳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문의 : 062)650-2099